

北김명길 “추후 회담 여부는 미국에 달려”

실무협상 마치고 베이징 도착 “美 새로운 선택법 만들지 못해” “2주내 재개 가능성 회의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로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귀국차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추후 회담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미국 입장의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 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데 불만을 토로한 뒤, 미국에 북한의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길 대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3터미널에 도착한 뒤 일방 통로로 나와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귀국차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옥스팜”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대사는 “2주일 후 회담 진행하느냐

질문에는 “2주일 만에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한 뒤 “미국이 판문점 회담 이후 거의 아무런 선택법을 만들지 못했는데 2주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거 같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이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 측에 물어보라”면서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 두고 보자”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어떻게 제안해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그건 미국 측에 물어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에 원하는 바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제안해놨으니 미국 측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앞서 북미 실무협상 결렬을 표명했던 김명길 대사는 스톡홀름에서 출발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하면서 미국 측이 기대한 대로 2주 안에 실무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북면금지법’ 나흘째

홍콩 전역서 시위 격화

시민들 생필품 사재기

시위 사태의 확산을 막겠다며 홍콩 정부가 북면금지법을 시행했지만, 시위 사태가 되려 격화하면서 홍콩이 ‘유령 도시’처럼 변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북면금지법을 발표한 4일부터 홍콩 전역에서 시위가 사흘 연속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삶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대형 쇼핑몰이 문을 닫고 주요 마트마저 영업시간을 단축하면서 마트마다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일부 시민은 쌀, 화장지 등까지 사재기하는 모습이었다. 환완 지역에 사는 70대 노인 정 씨는 슈퍼마켓에서 5kg짜리 쌀 세 포대와 냉동만두, 통조림 등을 잔뜩 샀다.

전날 홍콩 최대의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은 홍콩 전역에서 영업하지 않았다. 대형 태풍이 불어닥쳐도 문을 열던 세븐일레븐이 영업을 중단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완차이 지역에서 물건을 사러 나온 한 여성은 “30분 동안 돌아다녔지만, 문을 열던 슈퍼마켓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시위대가 홍콩을 뒤집어놓고 있지만, 우리 같은 시민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면금지법이 시행돼 홍콩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진 지난 5일에는 홍콩 전역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다. 이는 홍콩지하철공사(MTR) 4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날에도 시위 발생 지역의 주요 역은 모두 폐쇄됐다. /연합뉴스



런던 거리 ‘멸종저항’ 시위 6일(현지시간) 붉은색 의상을 입은 시위대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기후변화 운동단체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 주관 국제 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마블 아치 인근 옥스퍼드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멸종저항 시위대는 7일부터 2주간 전 세계 60개 도시를 돌며 환경 재앙을 경고한다. /연합뉴스

北어선-日단속선 동해서 충돌...“北승조원 20여명 구조”

영유권 갈등 ‘대화퇴’ 어장 “北승조원 20여명 바다 빠져”

북한의 어선과 일본 정부의 어업 단속선이 동해상에서 충돌했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북서쪽 350km 지점 먼바다에서 수산청의 어업 단속선 ‘오쿠니’와 북한의 대형 어선이 충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로 북한 어선의 승조원 20명 가량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북한 어선은 완전히 침수됐다. 일본의 어업 단속선은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한 상태로, 북한 승조원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여 20여명을 구출했다.

사고가 난 해역은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대화퇴(大和堆) 어장으로 북한 어선들이 자주 조업하는 수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퇴 어장의 대부분은 한일 공동 관리 수역에 속한다. 일본은 이 해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공선(公船)으로 보이는 선박은 지난 8월 23일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향해 “(북한) 영해에서 즉시 퇴거하라”며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북한 선박은 소총으로 무장한 채 어업단속선에 30m까지 접근했다. 이후 북한 외무성은 9월 17일 당시 상황에 대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등 선박들이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입해 몰아냈으며 정당당한 주권행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01〉 여몽정

여몽정(呂蒙正, 944-1011)의 자는 성공(聖功)이며 하남성 낙양 출신이다. 북송 태조와 태종때 3번에 걸쳐 재상을 역임하며 왕조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

977년 진사시시에 장원으로 합격해 공직에 나갔다. 장작감소, 승주통판에 임명되었다. 태종에게 지방으로 가기 전 고별인사를 하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을 타고와 직보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20만냥을 하사했다. 980년 수도 개봉으로 돌아오자 저작랑, 직사관, 좌승유에 임명했다. 부친 여구도는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며 분처 류씨와 사이가 나빴다. 모자를 집에서 내쫓아 돌을 어렵게 생활했다. 그가 관직에 나가자 부모를 집에 같이 모셨는데 서로 각 방

래 재상에 세 번 오른 사람은 조보와 여몽정 2인 뿐이었다. 1003년 재상에서 물러나 태자태사에 오르고 허국공에 봉해졌다.

1005년 관직을 사직하고 낙양으로 귀향했다. 조정을 떠나는 날 진종에게 “먼 곳에 있는 이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전쟁을 그쳐 재물을 아끼는 것이 치국의 상책입니다. 폐하께서는 항상 백성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는 고별사를 올렸다. 진종은 노고를 치하하며 아들 여중간은 태자를 보좌토록 하고 여지간은 예랑에 임명하였다. 진종이 선제의 능을 참배하는 도중 두 번이나 그의 집을 방문해 많은 재물을 하사했다. 68세로 세상을 떠났고 문목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중서령에 추증되었다. 처음 관직에 나아가자 어느 고관이 그를 지켜보며 말하기를 “이런 자도 정

북송 왕조 구축에 공헌한 명재상

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한림학사, 도랑관중, 좌간의대부, 참지정사로 승진했다.

993년 이직이 재상직에서 물러나자 중서시랑 겸 호부상서, 동평장사, 감수국사에 임명되었다. 첫 번째 재상직에 오른 것이다. 태종과 전국 통일에 관해 논의했다. 태종은 말하기를 “잡이 행하는 정벌은 백성을 위해 흥복한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력이 남용되면 백성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답하기를 “수양제는 고구려 정벌시 전군이 전멸했고 당 태종은 요동성을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네 번이나 요나라를 정벌하느라 백성들이 모두 지쳤습니다. 차국의 근본은 국내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국내를 잘 다스리면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와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인품이 넉넉하고 명성이 높았다. 국사를 논함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용기있게 주장하고 공평하지 못한 일은 수용하지 않았다. 995년 하남부통판 겸 서경유수로 임명되었다. 낙양에 부임해 정사를 아래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안만 결정했다. 진종이 즉위하자 우복사에서 좌복사로 이동했다. 태종의 능을 조성할 때 황제가 자신에게 배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며 재산 300만냥을 내놓았다. 태종이 임관하는 날 목 놓아 울었다. 북송 개조 이

사를 논하는 회의에 참석하는가.” 그의 동료가 누구인지 확인하겠다고 말하자 응답하기를 “만약에 내가 그의 이름을 들으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네.” 그의 도량이 이토록 컸다.

재상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아부하였다. 한 조정 대신은 200리 밖까지 비출 수 있는 옛 거울을 가져와 청탁했다. 웃으며 말하기를 “내 얼굴은 겨우 집시만한데 200리 밖까지 비추는 거울이 왜 필요하겠나. 도로 가져가게.” 태종이 그에게 요나라에 갈 사신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하문했다. 진씨 성을 가진 관리를 추천했지만 태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동의하지 않았다. 다음 날 동일한 인물을 추천하였고 또다시 거부되었다. 삼일째 반복되자 태종은 화를 내며 왜 고집을 피우냐고 물었다. “자신은 아첨하면서 황제의 뜻을 추종해 국사를 그르칠 수 없습니다”고 대답했다. 부연이라는 선비가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추천했다. 아들을 만난 후 그의 공훈이 자신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며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 후일 두 번이나 재상에 오른 부활(富弼)이었다. 진종이 그에게 아들 가운데 중용할만한 인물이 있느냐고 물었다. 자신의 아들 중에는 없고 조카 여지간이 재상의 능력이 된다고 답하였다. 여지간 역시 후일 재상의 지위에 올랐다.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